

Tianjin, 에폭시 원료 공급기지 부상

2003년 1-6월 ECH 1만7000톤에 가성소다 14만톤 생산 ... 중국 3위

중국 Bohia Group의 Tianjin Chemical Plant는 2003 상반기 ECH(Epichlorohydrin) 1만7000톤 및 가성소다(Caustic Soda) 14만톤을 생산함으로써 중국 에폭시 수지(Epoxy Resin) 원료의 핵심 공급기지로 발돋움했다.

Tianjin Chemical Plant는 1938년 설립된 대규모 CA(Chloro-Alkali) 생산기업으로 직원 10만명 이상, 공장부지 330만 평방미터, 고정자산 20억원 규모를 자랑하며, 현재 Tianjin Bohai Chemical Industrial Group에 소속돼 있다.

수년 동안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국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ECH 사업을 시작해 1999년 10월28일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프로젝트 투자액은 총 7억4000만원으로 1단계 9만톤 Diaphragm 가성소다 Evaporation 프로젝트가 2000년 11월25일 완료됨에 따라 가성소다 생산 코스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품질 ECH 및 가성소다를 에폭시 수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Tianjin Chemical Plant는 중국 ECH 및 가성소다 생산능력의 각각 3,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PVC, Paster PVC, Monochlorobenzene, Hydrochloric Acid 및 Liquid Chlorine도 생산하고 있다.

Tianjin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현재 중국 시장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및 동남아 등 12개 이상의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12>